엠파이어 스테이트가 걸프 지역과 하나가 되어 탄생한 본드 넘버9 두바이(Bond No. 9's Dubai) -모던한 스타일의 뉴욕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아랍 향수들의 새로운 콜렉션

뉴욕, 2015년 11월 6일 /PRNewswire/ -- 상징적 도시들은 건설되는 데 수세기가 걸린다. 하지만 아라비아 사막에 독특하게 자리한, 첫 21세기 메갈로폴리스(megalopolis)인 두바이는 지난 10년, 20년 동안 무에서 갑자기 창조된 것처럼 생겨나더니 전 세계 최대 높이의 빌딩을 보유한 도시로 빠르게 성장했다.

뉴욕은 예상대로 두바이의 성장에 깊은 인상을 받을 수 받게 없었다. 특히 도시 중심의 본드 넘버9은 해당 사막 메트로폴리스의 담대함을 매우 높이 산다. 또한 **중동의 향수 중심지**로써 두바이의 역할 역시도 매우 인상 깊다. 그래서 뉴욕에서 영감을 받은 중동 오드 퍼퓸(eaux de parfume) 콜렉션인 **본드 넘버 9 두바이(Bond No. 9's Dubai)**를 통해 이 모래 위 전설적인 도시를 그 고유의 방식으로 기념할 예정이다.

뉴욕처럼, 두바이는 **기항지**이자 교역소이며 부동산 산업이 활발한 금융 도시국가 이기도 하다. 뿐만 아니라 두바이는 **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몰**을 자랑한다.

본드 넘버 9 두바이(Bond No. 9's Dubai)는, 뉴욕의 개성이 스며있는 아랍 향수들의 콜렉션이다. 해당 향수는 클래식한 레반트(Levant)의 풍미와 향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현대 식물들의 세련됨도 함게 간직하고 있다. 해당 본드 넘버9은 황금을 바탕으로 한 별 모양의 병에인터레이스 방식으로 배치된 아랍식 별모양 광채들이 장식되어 있으며 해당 패턴은 우주적인 조화와 발견에 대한 그 감각을 불러일으킨다.

시장에 소개된 3종의 본드 넘버 나인 두바이(Bond No. 9's Dubai)는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.

루비도어(Ruby

<u>door)</u>의 향은 달콤씁쓰름 하면서도 강력한 사프란 톱노트로 시작해 호화로운 장미와 목련, 제라늄 다발 의 향으로 이어진다.귀중하지만 휘발성을 가진 해당 혼합액은, 호박, 백단유, 몰약, 사이프리올, 사향액 으로 구성된 관능적인 향들의 혼합을 통해 오랫동안 유지되는 베이스 노트 향과 함께 지속된다. 특히 백단유는 해당 유혹적인 혼합액에 흙 내음이 나는 어딘가 소박한 관능성을 더한다.

<u>에메랄드(Emerald)</u>는 **빛과 어둠의 매혹**을 간직하고 있다. 에메랄드 역시 첫 향은 신선하고, 나무향의 히솝과 샴페인 같은 알데하이드와 함께 사프란향으로 시작된다. 활기를 돋우는 소량의 후추와 함께 짙 은 시럽 같은 오드(oud)에 둘러싸인 파촐리와 장미가 선사하는 황홀감은 에메랄드만의 매력이다. 베이 스는 파촐리와 백단유, 호박, 사이프리올, 그리고 가죽향의 조합으로 **순수한 이국풍**의 느낌을 풍긴다.

인디고는 **사막의 신기루** (Indigo is **a desert**

mirage). 활기 넘치는 여지, 복숭아, 베르가못으로 구성된 톱노트향은 오랜지 꽃들로 활기를 돋운 모란

과 자스민 향으로 이어진다. 이는 화이트 머스크(사향), 호박, 침향, 오크모스로 이루어진 이국적인 느낌 의 베이스노트 향으로 이어져 오랫동안 유지된다.

2015년 11월 론칭

권장 소매가격: 100ml, 550달러 (USD)

문의: 언론, 리사 레디커(Lisa Rediker): publicrelations@bondno9.com